—주요한의 불노리보다 앞선 자유시

南國의 바다 가을은
아즉도 따뜻한 볏을 沙汀에 흘니도다.
저젓다 말넛다 하는 물입술의 자최에
납흘납흘 아득이는 흰나뷔
봄 아지렝이에 게으른 꿈을 보는 듯.

黃金公子 꾀꼬리 노래에
梨花紛紛 這의 춤을 자랑하던
三春의 行樂이 잇치지 못하여
묵은 꿈을 이어보려
깁흔 수풀 너른 덜노 헤매다가,
지난 밤 一陣의 모진 바람과
맵고 찬 쓰린 이슬에 것치러진
옛봄의 머무럿든 터만 記憶하고
이 바다로 내림이라.

珊瑚珠 시공에 들려오는
먼 湖水의 香내에 醉하여,
金바람의 압수레에 부듸처
허엿케 이러나는 적은 물결을
前에 놀던 꼿으로만 역여
납흘납흘 춤추며
天涯 먼곳 無限한 波濤로.

아아! 나뷔여, 나의 적은 나뷔여
너 홀노 어대로 가는가.
너 가는 곳은 滅亡이라.
바다는 하날과 갓치 길메
暴惡한 波濤는
너의 藝術을 파뭇으려 할지라.
무섭지 아니한가, 나뷔여
검은 海藻에 숨은 고래는
너를 덤석 삼키려
기다렷다 벌컥 이러나는 큰 물결은
너를 散散 바숴려.

아츰 이슬과 저녁 안개에
軟하게 된 적은 날개와
山과 덜에서 疲勞한
這의 몸으로 險한 바다 어이 가리.
뉘우침을 업수히

過去를 崇拜치 안이하던 적은 나뷔
不詳할게나, 凡俗의 運命에에 떠러짐.

刹那의 쾌락, 瞬間의 파멸!
哀닯고 압흐도다. 큰 事實의 보임이,
無窮한 存在의 너른 바다는
永劫의 波濤를 이리킬 뿐이라.
아아 나뷔는 발서 보이지 안는다.
이러케 나만 뭇에 내리랴.
나의 울음 너에게 들릴 길 업스나
나 홀노 너의 길을 슯허하노라.

—“潮에 蝶(崔承九), 학지광 5호(1915. 5. 2)” 전문

崔承九(1892~1917)

본관은 해주(海州), 호는 소월(素月)이다. 1892년(고종 29) 경기도 시흥(始興)에서 태어나 보성전문학교를 거쳐 일본 게이오대학[慶應大學] 예과에서 수학하였다.

도쿄[東京]에 유학 중이던 1915년 2월 《학지광》 4호에 시 《벨지엄의 용사》를 발표한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과 폐결핵으로 고생하면서도 1년여에 걸쳐 25편의 시와 수필·평론 등을 쓰는 한편, 화가이자 문인인 나혜석(羅蕙錫)과의 사랑으로 화제에 오르기도 하였다.

이후 폐결핵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해 요양하던 중 26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였다. 첫 발표작인 《벨지엄의 용사》를 내놓을 때 소월 김정식(金廷湜)과 같은 필명을 쓴 까닭으로 김소월과 혼동되기도 하였다. 그 후 세간에 잊혔다가 1972년 5월 4일자 《동아일보》에 기사가 나면서 다시 알려지게 되었다.

《벨지엄의 용사》는 신체시의 형식과 운율을 띠면서도 긴박감이 넘치는 독특한 비유법을 통해 일제에 대한 강한 저항 의지를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항일 저항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24편의 미발표 시들은 《벨지엄의 용사》와는 달리 영탄과 독백, 관념과 낭만에 치우쳐 이 시기의 다른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을 통해 받아들인 서양 유미주의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한 채 감상적으로만 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최남선(崔南善)과 이광수(李光洙)의 2인 문단 시대로 일컬어지던 1910년대에 항일 저항 의지와 서정적 주체성이 담긴 작품 세계를 통해 한국 근대 시문학 발전에 한몫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시 《박사 왕인의 무덤》《불여귀》《종(種)》《보월(步月)》 외에 산문 《정감적 생활의 요구》《남조선의 신부》《너를 혁명하라》 등이 있으며, 1982년에 유고집 《최소월작품집》이 출간되었다.